

비행 개입 수준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 청소년들의 '가능자아'를 중심으로 -

윤진, 장근영, 박윤창, 김도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아개념 중의 하나인 '가능 자아'(possible selves)와 비행간의 관계를 149명의 일반 청소년들(중2: 51명, 고1: 49명, 대학생: 49명)과 191명의 비행청소년들(가정법원: 39명, 소년보호관찰소: 53명, 소년원: 99명)을 대상으로 탐색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행에 깊이 개입한 집단일수록 인습적인 영역과 비인습적인 영역에서 부정적인 가능자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긍정적인 가능자아 역시 직업을 제외한 두 영역에서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 두가지 가능자아 간의 균형정도를 측정한 결과,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직업'영역에서는 비행이 심화될수록 더욱 비판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비행 초기 집단인 가정법원집단의 부정적인 가능자아는, 인습적인 영역에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이 더 낮은 부정적인 가능자아를 보인 반면, 비인습적인 영역에서는 반대로 가정법원 집단이 더 낮은 부정적인 가능자아를 보였다. 이는 가능자아와 비행에 관한 이론적인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부정적인 가능자아의 분포가 '비행에 대한 취약성' 측정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미 비행을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능자아와 미래 행동에 대한 이론적 가정들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 수용 혹은 감독 중인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능자아와 추후 재범 여부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범죄 문제 자체가 청소년기와 연관이 있다 (Oyserman & Markus, 1990 a)고 말한다. 더구나 많은 연구들은 신고되고 경찰이 개입한 '드러난' 범죄만을 다루고 있으나, '숨은 비행'에 대한 조사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의 비율은 훨

씬 높다 (윤진, 광금주, 문은영, 1992).

청소년 범죄자의 대부분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단순범이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나 선배들과 어울리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그들은 결코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려고 계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 유발의 요인으로 '충동성'이나 '또래집단의 압력에 대한 민감성' 등에 대한 연구(Hynan & Grush, 1986;

* 이 논문은 윤진(1995)이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때 함께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임을 밝혀둔다.

Kagan, Rosman, Day, Albert & Phillips, 1964; 정태연, 1992)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그것이 청소년주변의 선정적인 대중매체와 사회적, 심리적 압력 등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이광호, 1992).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이러한 위험 요인들로부터 청소년을 격리,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정보 통신망의 급속한 확대, 전반적인 사회적 기강의 해이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비행 위험 요인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일반화 되어 선별적인 격리나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결과를 숙고하게 하여 충동적인 판단과 행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충동억제에 대한 '내적 통제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 문제 대처에 크게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내적 통제과정에 접근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구인 중의 하나로서 '가능자아'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Kaplan에 의하면, 개인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하는 경험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부여하는 경험을 최대화 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Kaplan, 1972, 1975, 1980, 1982). 즉, 비행이나 범죄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개념을 위협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방어가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란 부모나 친구로부터의 거부, 유능감의 상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실패 등을 말한다. 만약 개인이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없다면, 규범에 동조하려는 동기를 상실하게 되며, 그 대신 규범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자아개념의 향상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결과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한다. Kaplan 이론의 중요한 시사점의 하나는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비행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

론과 일치하게,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비행을 저지르는 빈도가 높았다(Kaplan & Robbins, 1983; Leung & Drasgow, 1986; Kaplan, Martin & Johnson, 1986).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아개념과 비행행동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연구결과들도 많다(Bynner, O'Malley & Bachman, 1981). 또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청소년들의 자아개념 수준이 낮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Stanger, Chassin & Young, 1983; Wells & Rankin, 1983).

이러한 연구간 불일치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Leung과 Lau(1989)는 다차원적(多次元的)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를 재정리했다. 즉, 자아개념 전체와 비행간의 상관은 없었으나, 자아개념을 여러가지 하위차원들로 구분해 각각의 상관을 검증해 본 결과,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그리고 부모와 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신체적 영역에 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김하연, 오경자, 윤진(1991)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자아개념과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그리고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 연구에서 부모관계나 학업에 관한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또래관계와 신체적 영역에 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또래집단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규범에서 벗어나는 또래집단의 행동에의 동조경향과의 상관관계는 더욱 뚜렷했다. 다시 말해 자아개념은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에 영향을 미쳤고,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는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가능자아'(possible selves)는 미래-지향적이고 자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자아개념을 말한다. Oyserman과 Markus(1990a)는 가능자아란 '우리가 될수 있거나, 되기를 원하거나, 혹은 될까봐 두려운 자아를 통칭하

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가능자아는 어떤 기대를 개인화하고 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즉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면에서 가능자아는 개인에게 자기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해주는 동기의 근원이다 (Gollwitzer, 1989; Oyserman & Markus, 1990 a). 예를들어, 어떤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하기"와 같은 성취 목표에 대한 가능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목표에 대해 제 3자로서 가질수 있는 인지적 지식과 객관적 태도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때의 내 모습이 얼마나 좋을 것인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Markus, Cross, & Wurf, 1990).

뿐만 아니라 가능자아에는 이 외에도 거부하거나 피해야만 하는 결과상태(예를들어, 실직, 치욕, 죽음)에 대한 이미지나 의식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의식'과 같은 자아가 개입된 지식인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가능자아는 '동일영역 내에 있는'서로 양극으로 대치되는 가치를 지닌(countervailing) 가능자아에 의해 균형이 유지될 때 가장 강력한 동기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Oyserman & Markus, 1990b). 즉, 긍정적 가능자아는 그것이 두려운 가능자아와 균형을 이룰 때, 다시말해 그 두려운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동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실업자(부정적 가능자아)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긍정적 가능자아)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탈선의 유혹을 뿌리치려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긍정적인 가능자아'(학교성적이 좋은 학생)는 만약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두려운 표상(실업자)와 짝지워 짐으로써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동기의 원천이 된다. 그런데 Oyserman과

Markus (1990 a)는 가능자아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했다.

- ① 희망하는(Hoped-for) 가능자아 는 장차 위대 과학자가 되겠다는 어린이의 희망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관한 막연한 꿈이나 환상을 말한다. 이런 자아는 반드시 실현되리라 생각되지 않으며, 비록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로 큰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을 가능자아이다.
- ② 기대되는(Expected) 가능자아 는 긍정적이며, 성취가능성이 있고, 그에 적절한 도식, 계획, 행동통제 전략 들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긍정적 가능자아'이다. 예를들어, 한 청소년이 자신이 학교에서 잘 생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경우, 이 가능자아에는 자기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고, 혹은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자신의 모습 등의 구체적인 심상이 포함되어 있다.
- ③ 두려운(Feared) 자아 는 '낙제하는 것' 혹은 '시험지를 앞에 놓고 답을 몰라 난감해 하는 모습'이나 혹은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는데 나만 재수생이 되는 것' 같이 청소년들이 회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가능자아'이다. 이 두려운 가능자아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피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이 여겨지는 자아의 모습이다.

Oyserman과 Markus(1990a)는 가능자아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6개의 가설로 정리했다.

가설 1. 자신들에게 실현되리라 여길 만한 '긍정적인 가능자아'가 적은 청소년들은 비행에 개입하기 쉬운 것이다.

가설 2. '긍정적인 가능 자아'를 가지고 있지

만, 동일 영역 내에서 '두려운 자아'가 없는 청소년들(즉, 자신의 가능자아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도 역시 비행에 휩쓸리기 쉬울 것이다.

가설 3. 인습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획득하는데 실패한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획득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비행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 4. 비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 비행은 또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가능자아가 그들의 점점 커져가는 부정적인 가능자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속된다.

가설 5. 비행의 빈도는 청소년들이 인습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게 될수록, 혹은 인습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가능자아'와 균형을 이룰 만큼 '부정적 가능자아'가 발달될수록 감소할 것이다.

가설 6. 비행은 '긍정적 가능자아'와 '부정적 가능자아'를 청소년 주변의 부모, 형제, 교사 등의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들이 얼마나 확신시켜주는가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가능자아의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Oyserman과 Markus(1990a)의 가설에 의하면, 긍정적인 가능자아의 전체 점수는 비행 청소년집단이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더 낮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비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추구하게 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비행에 더욱 깊이 개입할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자아가 높을 것이다. 실제로 Oyserman과 Markus (1990 b)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표집에서 가능자아와 두려운 자아간

의 균형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 일반청소년들 보다 비행청소년들에게서 긍정적인 가능자아와 부정적인 가능자아간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발견했다. 더구나, 일반 청소년집단에서도, 가능자아간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3개월 후에 절도, 방화, 혹은 기물파손 등의 비행을 더 많이 저질렀다.

방 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 일반청소년 집단은 서울시내에 있는 C중학교(서대문구) 2학년 51명(평균연령 13.5세)와 K고등학교(송파구) 1학년 49명(평균연령 15.5세), Y대학교 2학년 49명(평균연령 20.49세)의 남학생을 학급단위로 표집했다. 다른 한편, 본 연구에 참가한 남자 비행 청소년 집단은 서울가정법원 산하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에서 관리중인 39명(평균연령 14.9세), 서울소년보호관찰소에 위탁된 53명(평균연령 17.5세), C소년원에 수감된 99명(평균연령 17.4세)의 3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 표집된 청소년들의 가능자아를 측정하기 위해 Markus와 Nurius(1986)가 사용한 자아와 자아-관련 기대(self and self-relevant expectation)에 대한 질문지를 번안해서 사용했다. 이 질문지는 원래 6개의 영역에 해당되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서술문과 중립적인 서술문 그리고 부정적인 서술문으로 이루어진 총 13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시간의 제한과, 중립적인 문항들에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는 항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문항중에서 중립적인 문항과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성격 영역의 일부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69개 항목만을 사용했다.

설문지를 구성하는 6개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① '생활 방식(life style)' 영역은 개인적 명예와 회적 위치 등에 관련된 긍정적(예, 유명인사)이

거나 부정적인(예, 가난한 사람)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영역에서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의 수는 각각 6개와 7개였다(Cronbach's $\alpha = .66$).

② '직업' 영역은 개인의 생계수단이나 직업의 조건과 관련된 긍정적(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부정적인(예, 교도소의 죄수) 문항들로서, 문항의 수는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8개였다(Cronbach's $\alpha = .72$).

③ '타인의 평가' 영역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 개인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문항들로서 긍정적인 문항(예, 호감을 주는 사람) 8개와 부정적인 문항(예, 망신당하는 사람) 7개로 이루어져 있었다(Cronbach's $\alpha = .76$).

④ '신체적 매력' 영역은 개인의 신체적인 외모와 관련된 긍정적(예, 잘생긴 사람)이거나 부정적(예, 약물중독자)인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영역에 포함된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 문항의 수는 각각 6개와 11개였다(Cronbach's $\alpha = .73$).

⑤ '성격' 영역은 개인적인 기호나 기질, 혹은 성격등에 관련된 긍정적(예, 의욕적인 사람)이거나 부정적인(예, 우울한 사람)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영역에서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의 수는 각각 7개와 14개였다(Cronbach's $\alpha = .83$).

⑥ '일반적 능력' 영역은 목공이나 가사일등과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에 관련된 문항들로서 긍정적인 문항(예, 물건을 고칠 수 있는 사람) 7개와 부정적인 문항(예, 무기력한 사람) 3개로 이루어져 있었다(Cronbach's $\alpha = .77$).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과 관련해 위의 6개 항목 중에서, '생활방식', '직업', '타인의 평가' 영역은 사회적/인습적 성공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인습적 영역'으로, '신체적 매력', '성격', '일반적 능력' 영역은 비교적 사적(私的)이고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인습적 영역'으로 분류했다. 청소년들의 '가능자아'를 측정하기 위해 미래에 '그 문항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될 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한 응답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그런 생각을 해본다)'(5점)로 이루어진 5점 척도상의 한 점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긍정적인 가능자아점수의 평균에서 부정적인 가능자아 점수의 평균을 뺀 값으로 '가능자아의 균형정도'를 측정했다. 따라서 '가능자아의 균형점수'가 높을수록 그 개인의 가능자아가 긍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반면, 그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편향된 것이다.

결 과

집단에 따른 '가능자아'점수들의 차이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의 첫째줄(전체-긍정적)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긍정적인 가능자아' 점수는 일반집단과 비행집단에서 대학생과 소년원집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그림 1). 여기서 대학생집단과 소년원 집단은 서로 소속된 집단(일반 대 비행집단)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이 개입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업적 성취와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발달하거나, 혹은 비행과 같은 일탈적인 방향을 선택하거나 간에, 전체적인 긍정적 가능자아는 증가함을 의미한다. 사후검증 결과¹⁾에 의하면, 이들중 중학생 집단 및 가정법원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긍정적 가능자아를 가지고 있었고, 대학생과 소년원 집단의 점수가 중학생, 가정법원, 보호관찰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부정적인 가능자아'점수(표 1의 둘째줄) 역시

1)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05의 최소유의차검증 방식(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을 사용했다.

표 1. 집단에 따른 '가능자아' 점수들의 차이

변인		일반 집단			비행 집단			F
		중학생 (n=51)	고등학생 (n=49)	대학생 (n=49)	가정법원 (n=39)	보호관찰소 (n=53)	소년원 (n=99)	
전체	긍정적	129.14(32.18)	154.89(29.93)	181.43(22.35)	133.46(27.07)	145.62(29.03)	155.97(28.03)	21.59***
	부정적	82.45(27.58)	90.88(20.11)	95.94(21.87)	93.31(21.62)	93.62(26.25)	102.98(22.40)	
인습적 영역	긍정적	55.53(14.52)	67.55(13.59)	76.37(10.16)	56.03(14.01)	61.43(13.83)	65.78(13.70)	16.55***
	부정적	41.06(14.40)	44.69(9.99)	45.33(12.39)	47.31(11.31)	46.42(13.46)	52.04(12.30)	
생활 방식	긍정적	18.02(4.79)	21.67(4.22)	23.95(3.58)	18.07(5.08)	19.47(4.68)	21.09(5.25)	11.55***
	부정적	12.35(4.43)	14.10(3.92)	14.12(4.03)	14.38(4.25)	13.66(4.88)	15.85(4.54)	
직업	긍정적	14.73(5.15)	18.27(4.08)	20.08(3.62)	14.23(5.15)	16.04(5.38)	15.88(4.80)	10.59***
	부정적	14.82(6.41)	15.43(4.67)	16.16(5.47)	16.87(5.43)	16.39(5.85)	18.42(5.34)	
타인의 평가	긍정적	22.78(6.97)	27.61(7.53)	32.33(5.04)	23.72(5.55)	25.92(5.66)	28.81(5.52)	17.02***
	부정적	13.88(4.78)	15.16(4.19)	15.04(4.43)	16.05(4.19)	16.36(5.64)	17.77(4.62)	
비인습적 영역	긍정적	71.90(18.70)	85.08(16.82)	103.41(13.45)	75.59(14.67)	82.43(15.98)	88.12(15.33)	23.88***
	부정적	40.94(13.89)	46.06(11.48)	49.69(10.43)	45.72(11.74)	47.00(13.20)	50.61(11.37)	
신체적 매력	긍정적	14.65(3.67)	16.10(4.05)	21.12(3.59)	15.00(3.77)	15.89(4.09)	17.89(3.47)	20.85***
	부정적	18.92(7.35)	20.45(6.57)	22.08(6.79)	21.46(5.86)	21.23(6.88)	22.96(6.69)	
성격	긍정적	37.92(9.62)	45.88(9.43)	56.08(7.37)	39.87(8.25)	43.53(8.98)	45.99(8.78)	25.45***
	부정적	15.55(5.75)	17.92(5.86)	19.31(4.77)	17.23(5.03)	18.43(5.67)	19.29(4.76)	
일반적 능력	긍정적	19.33(7.84)	23.10(5.46)	26.20(4.86)	20.72(5.82)	23.02(6.02)	24.24(5.16)	6.73***
	부정적	6.47(3.12)	7.69(2.43)	8.31(1.81)	7.03(2.56)	7.34(2.81)	8.35(2.63)	

* p < .05 ** p < .01 *** p < .001 표시된 수치는 평균, () 안은 표준편차.

긍정적인 가능자아와 마찬가지로 대학생과 소년원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그림 1). 그러나 일반집단 전체평균값(89.66)은 비행집단(98.41)보다 유의하게 낮아서($F_{1,338} = 11.27, p < .001$), 비행청소년 집단이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더 높은 부정적 가능자아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했다. 특히, 대학생 집단이 부정적 가능자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추구하려는 동기는 부정적인 가능자아의 존재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Oyserman과 Markus의 예측과 일치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습적 가치 영역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가능자아 점수가 낮고, 부정적인 가능자아 점수는 높으리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런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가능자아 점수는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모두에게서 연령과 개입의 정도가 큰 집단(대학생, 소년원)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여 본 연구의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단, '직업' 영역에서는 일반집단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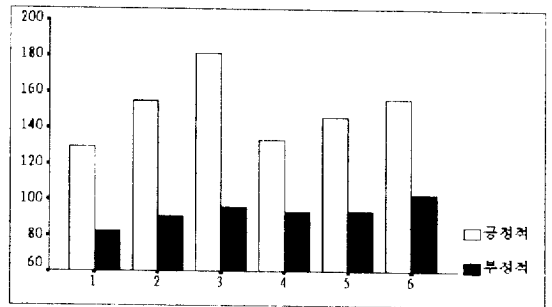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적인 가능자아와 부정적인 가능자아의 전체평균 분포(그림의 세로 눈금은 가능자아 측정치, 가로 눈금은 다음과 같다: 1=중학생, 2=고등학생, 3=대학생, 4=가정법원, 5=보호관찰소, 6=소년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비행집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4). 또한 부정적인 가능자아 점수는 비행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전체적으로 높고, 그중에서도 비행에 가장 깊이 개입된 집단인 소년원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그림 2). 다른 한편, 비인습적인 영역에서는 비행에 깊이 개입한 집단에서 더 많은 긍정적인 가능자아가 발견될 것이라는 예측과 같

이, 소년원 집단으로 갈수록 높은 긍정적 가능자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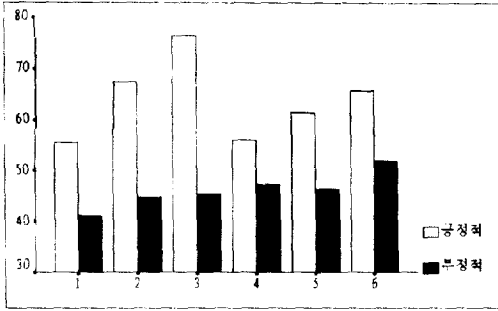


그림 2. 인습적인 영역에서 가능자아의 집단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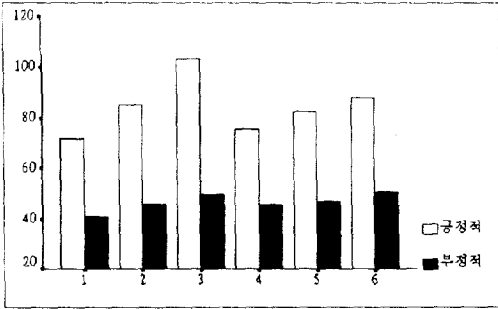


그림 3. 비인습적인 영역에서 가능자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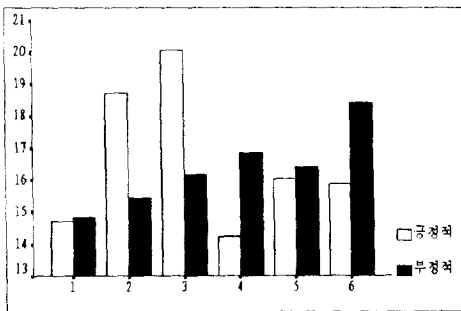


그림 4. '직업'영역에서 가능자아의 집단별 평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능자아의 균형'점수는 일반집단에서는 대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비행집단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거나, 비행에 대한 개입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5). 여기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가능자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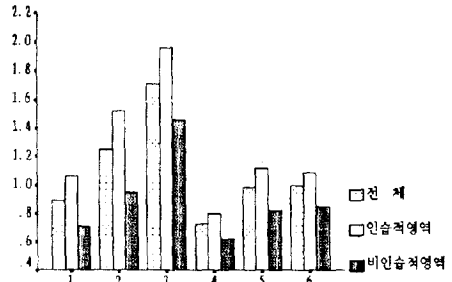


그림 5. 집단별 가능자아 균형점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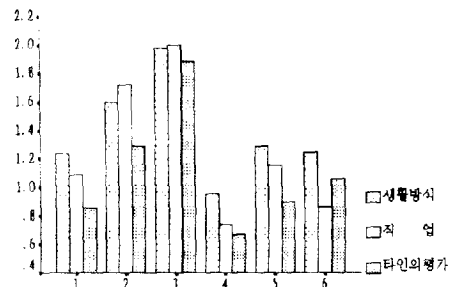


그림 6. 가능자아 균형점수분포(인습적 영역)
따라서 이 결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이 전반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편향된 '가능자아'를 갖고 있는 반면, 비행집단과 중학생 집단이 비교적 부정적으로 편향된 '가능자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하위영역(인습/비인습)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매력' 영역에서는 대학생과 소년원 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편향을 보였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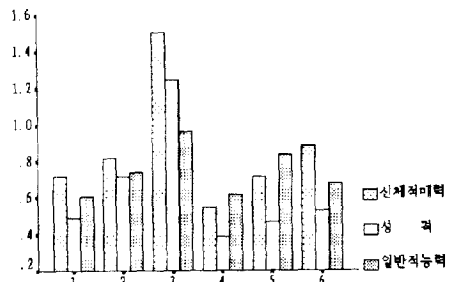


그림 7. 가능자아 균형점수 분포(비인습적 영역)는 의

표 2. 집단에 따른 '가능 자아'의 균형 점수들의 차이

변 인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F
	중학생 (n=51)	고등학생 (n=49)	대학생 (n=49)	가정법원 (n=39)	보호관찰소 (n=53)	소년원 (n=99)	
전 체	.89 (.65)	1.25 (.60)	1.71 (.62)	.73 (.60)	.99 (.68)	1.00 (.64)	14.35***
인습적 영역	1.06 (.79)	1.52 (.74)	1.96 (.69)	.80 (.80)	1.12 (.77)	1.09 (.75)	14.40***
생활방식	1.24 (.94)	1.60 (.83)	1.98 (.65)	.96 (.91)	1.29 (.93)	1.25 (.92)	7.72***
직업	1.09(1.03)	1.72 (.93)	2.00 (.87)	.74(1.20)	1.16(1.02)	.87(1.03)	12.42***
타인의평가	.86 (.90)	1.29 (.96)	1.89 (.99)	.67 (.85)	.90 (.95)	1.05 (.83)	10.88***
비인습적 영역	.71 (.63)	.95 (.58)	1.46 (.61)	.62 (.61)	.82 (.67)	.85 (.64)	10.72***
신체적 매력	.72 (.71)	.82 (.78)	1.51 (.81)	.55 (.83)	.72 (.84)	.89 (.72)	8.95***
성격	.49 (.82)	.72 (.86)	1.25 (.82)	.39 (.75)	.47 (.76)	.53 (.76)	7.88***
일반적능력	.61(1.08)	.74 (.71)	.97 (.76)	.62 (.85)	.84(1.04)	.68 (.98)	4.76***

* p < .05 ** p < .01 *** p < .001 표시된 수치는 평균, () 안은 표준편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가능자아'가 비행에 개입한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일반적인 청소년집단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점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가능자아'의 집단간 차이는 본 연구의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신체적 매력'과 같은 사적인(즉, 비인습적인) 가치 영역에서는 비행에 대한 개입이 깊을수록 오히려 더 높은 가능자아를 갖고 있는 반면, '직업'과 같은 인습적 영역에서는 비행에 깊이 개입된 집단일수록 더 낮은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보 이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가능자아는 '직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행의 개입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정적인 가능자아 역시 '신체적 매력'영역에서는 아직 비행에 깊이 개입하지 않은 집단(예, 가정법원집단)에서는 일반집단보다 낮은 부정적 가능자아가 발견되었지만, 비행에 깊이 개입한 집단(예: 소년원 집단)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부정적 가능자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들의 가치기준 변화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다. 즉, 비행에 계속 개입하게 되면서 직업적인 성공과 같은 합법적인 인생에 대한 기대

는 약화되지만 그 이외의 영역(예를들어, 신체적인 영역이나 성격, 혹은 타인들의 평가)에서는 다시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비행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Oyserman과 Markus(1990a)의 설명과도 어느정도 부합한다. 즉,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행을 통해', 혹은 '비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습적인 영역에서조차 긍정적인 결과(즉, 성공이나 **富有** 등)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비행청소년들의 준거집단이 일반청소년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경미한 소년범죄자 혹은 초범자(가정법원집단)에서 심각한 소년범죄자(소년원 집단)으로 갈수록 '타인의 평가'나 '생활방식'영역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비행에 깊이 개입하면서 점차적으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준거집단이 반사회적 집단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이 결과는 일반청소년 집단과 비행 집단의 가능자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신체적 매력'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비행 초기집단(가정법원집단)의 긍정적 가능자아 점수는 일반청소년보다 높았고, '직업'영역을 제외하고는 비행

정도가 심각한 소년원 집단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처음 비행을 저지르는 집단은 주로 자신의 미래에서 낙관적인 가능성을 찾아내지 못한 청소년들이지만, 점차 비행에 깊이 개입해가면서 오히려 처음에 갖지 못했던 낙관적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일반집단과 비행집단간의 차이는 부정적인 가능자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습적 영역으로 구분된 '직업', '생활방식', '타인의 평가'에서 부정적인 가능자아는 일반청소년 집단이 비행 초기인 가정법원집단보다 낮거나 같았으나, 비인습적 영역인 '신체적 매력', '성격', '일반적 능력'에서는 이와 반대로 일반집단의 부정적 가능자아 점수가 가정법원집단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이것은 인습적 영역에서 부정적 가능자아가 많고, 비인습적 영역에서는 부정적 가능자아가 적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비행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을 식별해 내는 데는 '부정적 가능자아 점수'가 다른 종류의 점수들 보다 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간의 차이이다. 중학생 집단은 '직업'을 제외한 전 영역의 점수에서 긍정적인 가능자아가 가장 낮았던 반면에, 고등학생 집단은 직업을 포함한 인습적 성취영역에서 높은 긍정적인 가능자아 점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향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2학년 집단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경향을 보인 점은,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청소년의 정서상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는 주장(이춘재와 콕금주, 1994)과는 상이한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집단이 고등학교 1학년 집단보다 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미래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학생들의 비관적 성향은 그들이 부정적인 가능자아

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전반적으로 저조한 점수는 이러한 추측을 지지한다.

또한 동시에 고려해 볼 점은, 이들 고2 학생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참여자 전체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은 남들의 사랑을 받고 유명해지며,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실했다. Oyserman과 Markus(1990b)의 연구에서도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도 그들이 가진 '희망하는 가능자아'는 일반청소년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한 '희망하는 가능자아'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된 '기대되는 가능자아'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전환에 필요한 흥미, 지식, 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그 청소년이 비행집단에 휩쓸릴지 아니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Matza(1964, 1969)는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환경 위를 '표류해 다닌다(drift)'고 묘사했다. 이는 그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의 계획이나 목표를 추진해 가기 보다는 순간순간의 사건, 요구, 그리고 제약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표류하는' 청소년들은 쉽게 비행에 휩쓸릴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려는 계획을 세웠거나 범죄에 연루될 길을 찾아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비행을 할 기회가 생겼을때 거기에 저항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Oyserman & Markus, 1990a).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 가능자아가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이렇게 비행에 '휩쓸릴' 가능성이 더 적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비행에 휩쓸릴 가

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원생들은 부정적인 가능자아를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긍정적인 가능자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Matza의 설명에 의하면 긍정적인 가능자아는 많지만 자신의 미래에서 부정적인 가능성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다시말해, 부정적인 가능자아가 적은) 청소년들은 어떤 특정 행동이나 행동의 연쇄과정이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인 잠재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가능자아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는, '겉보기에 매력적인 행동'인 비행에 끼어들라는 또래들의 권유를 청소년들은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비행집단은 이미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한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들이 비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어떤 형태의 가능자아를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가능자아와 이후 그들의 비행에의 개입 여부를 관련지어 볼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비행 청소년들의 가능자아 점수와 일정 기간 후의 재범여부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검증하지 못한 Oyserman과 Markus의 가설 1,2,5를 보다 확실히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피험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집단 피험자들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집단, 특히 대학생 집단은 서울시내의 4년제 종합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실제로 인습적인 영역에서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가능자아는 같은 또래의 '일반적인' 가능자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능자아'라는 구인과 기존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과

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능자아'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표상을 구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청소년문제를 파악하거나 그들을 선도하는데 실제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Oyserman & Markus, 1990a). 그러나 '가능자아'와 '자아개념' 혹은 '자아존중감'을 함께 측정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변인들 간의 밀접한 상관이 발견되었다(Markus, Cross, & Wurf, in press). 따라서 '가능자아'가 기존의 자아개념들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 아직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가능자아'개념의 실제적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척도에서 사용된 항목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속해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중 하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문화에 보다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능자아를 보다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척도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윤진, 문은영(1992). 한국 청소년 비행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27.
- 김하연, 오경자, 윤진(1991). 청소년의 자아개념·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및 비행간의 상호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99-212.
- 문은영, 윤진(1992).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44-63.
- 윤진(1995). 비행정도에 따른 청소년 자아개념의 차이: '가능자아를 중심으로'. 성곡논총, 26(상), 235-272.
- 이광호(1992). 청소년 유해환경 법제와 운용: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0, 182-204
- 이춘재, 곽금주(1994). 한국청소년 그들은 어떤

- 모습인가?: 자기상(self-image)에 의한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산하 발달심리학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정 태연, 윤 진 (1992). 충동성과 공격성이 좌절 상황에서의 사회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29-40.
- Bynner, J.M., O'Malley, P.M., & Bachman, J.G. (1981). Self-esteem and delinquent revisite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407-444.
- Gollwitzer, P. M. (1989). Action phases and mind-sets.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social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Vol.2). New York: Guilford.
- Hirs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ynan, D. J., & Grush, J. E. (1986). Effect of impulsivity, depression, provocation, and time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158-171.
- Kagan, I., Rosman, B. L., Day, D., Albert, J., & Phillips, W. (1964).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child: Significance of analytic and reflective attitudes. *Psychological Monographs*, 78(1, Whole No. 578).
- Kaplan, H. B. (1975). *Self 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Santa Monica, CA: Goodyear.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Kaplan, H. B., Johnson, R. J., & Bailey, C. A. (1986). Self-rejection and the explanation of deviance: Refinement and elaboration of latent structur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110-128.
- Leung, K., & Drasgow, F. (1986).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linquent behavior in three ethnic groups: An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151-167.
- Leung, K., & Lau, S. (1989). Effect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disapproval of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345-359.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Markus, H., Cross, S., & Wurf, E. (in press). The role of the self-system in competence. In R. Sternberg & J. Kolligan (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 sp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atza D. (1964). *Delinquency and drift*. New York: Wiley.
- Oyserman, D., & Markus, H. (1990a). Possible selves in balance: Implications for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46(2), 141-157
- Oyserman, D., & Markus, H. (1990b). Possible selv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12-125
- Oyserman, D., & Saltz, E. (1993). Competence, delinquency, and attempts to attain possi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360-374.
- Rosenberg, R., & Kaplan, H. B. (Eds.) (1982).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 Arlington Heights, IL: Hartan Davidson.
- Stanger, S. F., Chassin, L., & Young, R. D. (1983). Determinants of self-esteem among labeled adolescen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3-10.
- Wells, L. E., & Rankin, J. H. (1983). Self-concept as a mediating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11-22.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7. Vol. 10, No. 1, 155-166.

Level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ossible self

Gene Yoon · Geun-young Chang · Yoon-chang Park · Do-hwa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sible selves" of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cies. Possible self,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inducements of (or incentives for) future behavior, means positive or negative aspirations (or expectations) for the future. It was hypothesized that in the conventional domains, more involvement with delinquencies would lead to decrement of positive possible selves and increment of negative possible selves, whereas in the non-conventional domains, the situations are totally reversed. This hypothesis wa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on possible selves and delinquency (Oyserman & Markus, 1990).

Control groups consisted of 51 second grade students in junior high school, 49 first grade students in high school and 49 freshmen in college, and delinquent groups were sampled from Family Court (n=39), Probation Office (n=53), Juvenile Detention Center (n=99). They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which assessed positive and negative possible selves both in the conventional domains (vocational achievement, evaluation of others, life style) and the non-conventional domains (physical attractiveness, personality, general ability). The result showed that, as opposed to the hypotheses, negative possible selves increased in both domains as the involvement with delinquencies increases. Positive possible selves also increased in both conventional and non-conventional domains except for the vocational domain. In the bala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possible selves scores, as the involvement with delinquencies increases adolescents and the youth have more pessimistic viewpoint to the futur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the further studies are intently discussed.